Entertainment p/20
100억 소녀 질문에 수지 눈물

메트로 2013년 5월 21일 화요일

Sports p/22
어어니가 만든 배상문 우승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행복주택' 2030에 60% 몰아준다

2015년 12월 대학생 성송재(가명)씨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자신의 집에서 보낼 생각에 들떠있다. 오류동역 위에 지어진 행복주택 입주 대상으로 확정돼 3년여에 걸친 하숙 생활을 접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비록 대학생 대상에 해당돼 임대주택 규모는 최소 평수인 42.9㎡(13평)보다 작지만 편안한 내부가 오피스텔에 비해 주변 환경도 괜찮고 교통이 편리한 점에 끌렸다.

'박근혜표 반값임대' 잠실·송파 등 7곳에 건설 月20만~30만원으로 버블세븐서 마이홈 생활

과거와 달리 행복주택 입주 대상에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이 처음으로 포함된 행복주택의 시범지구가 결정됐다. 서울 오류·목동·잠실지구 등 철도부지와 유수지 7곳이다. 정부는 이곳에 임대주택 1만가구를 건설해 3년 뒤부터 공급할 계획으로 빠르면 2015년 말에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오류동역·가좌역 공릉동, 경춘선, 제선부지 안산 고잔역 등 철도부지 4곳과 서울 목동·잠실·송파 탄천 등 유수지 3곳 등 총 7곳 41만9000㎡를 행복주택 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7개 지구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1만50가구로, 소형 공공 임대주택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행복주택은 기존 임대주택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난다. 가장 큰 차이는 입주 대상을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희로부조자,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철거민 등에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또 이들에게 맞춤형인 집을 공급할 계획으로, 전용면적 규모가 이전보다 작은 19.8㎡(6평)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섭 국토부 공공택지기획 과장은 "입주할 수요자별로 차별화하려고 한다"며 "종전보다는 (주택 규모가) 작거나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사업단 과장은 "기존의 임대주택은 최소가 13평인데, (행복주택의) 대학생 기숙사는 6~9평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전망도 아직은 예상일 뿐이다. 행복주택에 대한 기본 건설 계획이 나오지 않은 탓이다. 기본 건설 계획은 빠르면 9월 완성되고, 첫 삽은 올해 안에 뜨게 된다.

이 과장은 "연구 용역을 진행 중으로 계획안이 나오면 9월 공청회가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수준도 아직 미정이다.

별도의 지대가 들지 않는 철도시설과 유수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현 임대주택에 비해 낮을 것이란 기대는 있다. 다만 보증금과 임대료도 수요자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것이란 방침은 분명하다. 또 임대료의 경우 시세의 50% 전후 수준으로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33㎡(10평) 기준 잠실동·가락동의 행복주택 월세는 시세의 절반 수준인 20만~30만원대일 것이란 전망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이 과장은 "이전에는 건설 원가로만 주로 책정을 했지만 이번에는 입주자의 소득 기준을 반영해 차등화할 것"이라며 "A의 소득이 100만원이고, B의 소득이 50만원이면 같은 주택이라도 임대료가 달라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소녀에서 여인으로… '꽃'이 된 그녀들 성년의 날인 20일 경기 수원창고에서 열린 성년식을 마친 수원권선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전통 한복을 차려입고 여고생의 티를 발산하고 있다. /뉴시스

명품 가방·시계 즐비… 전당포 이젠 '부유층 제3금융권'으로 변신

변호사·의사 등 북적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돈줄' 역할을 하던 전당포가 부유층의 '현금자급기'로 변모하고 있다.

저신용자를 타깃으로 한 전당포는 자취를 감춘 반면 최근 들어 전문직 종사자나 재벌가 자녀를 위한 명품 전당포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 등에 따르면 10만원 이하 급전을 빌리는 저신용자용 전당포는 전국 1000여 곳으로 10년 전에 비해 80%가량 줄었다.

반면 고가의 명품을 취급하는 전당포는 서울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400여 곳에 달했다.

이들 명품 전당포에서는 주 고객인 교수·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나 연예인, 재벌가 자녀, 사업가 등이 명품 가방·시계·골프채 등을 맡기고 현금을 융통해 간다. 스위스 명품 시계 중고 시세 1억2000만원이나 에르메스 가방 5개(개당 중고 시세 1200만원)를 맡기고, 각각 7000만원, 6000만원을 빌려가는 식이다.

특히 연예인의 경우 은행보다는 얼굴이 알려질 가능성이 낮은 전당포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IT전당포도 증가 추세다. 용산 전자상가와 대학가 주변에 자리 잡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전문가용(DSLR) 카메라 등을 전문으로 취급한다.

전당포 서비스도 업그레이드됐다. 실물 감정 후 5분 안에 계좌로 입금해주는 건 기본이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감정, 거래 방식도 새로 등장했다. 20~30대 명품족이 몰리면서다. 출장 방문은 명품 전당포 사이에서는 당연시된 지 오래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전당포가 신용불량자보다 중산층이나 부유층 급전을 융통해주는 제3금융권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유리기자 grace@

꼴찌학생에 주관적 점수 만점 줘 합격

승인 취소하고 관선이사 파견하라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영훈·대원국제중 교육청 감사 발표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관선이사 파견과 국제중 승인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훈·대원국제중 채점표까지 무단폐기 조직적 입시비리

입맛에 따라 학생을 골라 선발하고, 학교회계 집행에 부당하게 관여한 국제중학교 관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월 8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영훈·대원국제중학교에 대해 벌인 종합감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두 학교는 신입생 선발 시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노출한 게 심사하고, 성적을 조작해 특정 학생이 합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학교는 이를 감추기 위해 전형 관련 개인별 채점 자료를 무단으로 폐기했다.

◆ 교감·입학관리부장이 부정주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2013학년도 비경제적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통해 합격하면서 논란이 된 영훈국제중은 교감, 입학관리부장, 교무부장 등이 다서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1차 시험 객관적 채점 영역에서 525~630위에 속한 6명에게 2차 시험 주관적 채점 영역에서는 만점을 주는 방식으로 합격권으로 끌어올렸다. 반면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부적격자로 분류한 학생에게는 최하점을 줘 불합격시켰다.

서울교육청은 영훈학원 이사장과 교감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0명에 대해서는 파면과 부당 집행한 23억여 원을 회수하도록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대원국제중은 2010학년도 입시에서 차세대리더전형에 탈락한 학생이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탈락자 전원을 재지원하도록 해 1단계 전형에서 15명을 합격시켰고 5명은 최종 합격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동호기자 slevin@metroseoul.co.kr

해외출장 윤창중 학습효과

동행인턴 남성으로만 뽑고 건배는 주스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 이후 공무원 해외 출장에서 술과 여성을 멀리하는 '금욕'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난 19일 시작된 정홍원 국무총리의 태국 순방 일정을 지원하기 위해 선발한 인턴 3명은 모두 남성이다.

정부 관계자는 "강행군인 일정이라 남성을 많이 뽑았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윤 전 대변인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음주에 대해선 정 총리가 직접 단속하는 모습이다. "술을 꼭 마시는 사람만 데려갈까 하는 생각도 했다"고 한 정 총리의 금주령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실제 술을 마시는 공무원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전언이다. 한인 대표와의 오찬간담회에서는 오렌지 주스가 건배주를 대신했다. /김민지기자

‘국정원 수사 외압 의혹’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김용판 前청장 소환도 임박

검찰이 경찰 지휘부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의 수사 축소 의혹과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0일 오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 중에는 당시 김용판 청장과 수사부장, 수사과장 등의 컴퓨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해 당시 지시가 내려온 과정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 불거졌던 지난해 12월 11일부터 22일까지의 전산 자료와 사이버수사대 직원 등의 e메일 등을 찾아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수사 중 지휘부로부터 축소·왜곡 압력과 개입을 받았다고 주장한 권은희 수사과장을 8일 불러 조사했으며 13일 이광석 전 수서서장 등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검찰은 자료 분석이 끝나는대로 김 전 청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박동호기자

소방호스로 "스트라이크~" 20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2013년 경정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호스볼링 경기를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뉴스

서울시내 어린이집 입소 대기순번 전면공개

● 앞으로 서울 시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려는 부모들은 입소 대기 순번을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내 어린이집 6300여 곳의 입소 대기 순번을 시 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iseoul.seoul.go.kr)에서 볼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009년 구축한 '어린이집 입소 및 대기자 관리 시스템'을 통해 순번을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박동호기자

여행객 73% "항공권 싸진다면 기내식 돈 낼것"

● 여행객의 73%가 항공권 가격이 내려간다면 기내식 서비스를 유료화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 가격비교사이트 스카이스캐너가 국내 항공 이용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2.9%가 이같이 말했다고 20일 밝혔다. 적정한 기내식 가격으로는 1만원(77.9%)이 가장 많았다. 그 이상이라도 식비를 지불하겠다는 응답도 22%나 됐다. 편안한 자리에 대한 욕구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리를 편하게 뻗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추가 비용을 내겠다는 응답자가 71.7%에 달했다. /정보람기자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한달만에 11만명 접수

● 채무에 시달리는 서민의 자활을 돕는 국민행복기금에 한 달여 만에 11만 명이 접수했다고 금융위원회가 20일 밝혔다.

지난달 말(22~30일) 진행된 가접수에만 9만3968명이 몰렸고 이달 1일부터 시작된 본접수에는 2만여명이 신청했다. 이날부터는 연대보증자도 행복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추세라면 금융 당국이 당초 예상한 수혜자 32만 명을 훌쩍 넘어서 최대 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김현정기자

20일 서울 중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접수창구를 찾은 행복기금 신청자들이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250개 경찰서에 성범죄 전담 수사팀 신설

전국 경찰서에 성범죄 관련 치안 업무를 전담할 성폭력 전담수사팀이 신설된다.

경찰청은 2015년까지 전국 250개 경찰서에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성폭력 우범자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한 성폭력 대응 체계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본격 도입에 앞서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27일부터 8월 26일까지 3개월간 새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경찰은 전담팀에 성폭력 범죄 예방, 사건 수사, 피해자 관리 등 3가지 업무를 모두 맡겨 성폭력 범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관리 방식도 개선한다. 조범안 성범죄자는 나이, 음주폭력 전력, 부양가족 유무 등 20개 항목의 위험 요인 평가를 실시해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저위험군에 대해서는 직업·교육 소개, 후견 등 선도 정책을 병행한다. /김유리기자 grass100@

불황 못견뎌 폐업 속출 자영업 비율 사상 최저

경기 불황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사상 최저치로 추락했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중 취업자 중 자영업자는 571만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2510만3000명의 22.8%를 차지했다. 1983년 4월 34.2%에 달하던 자영업자 비율이 2008년(29.9%) 곤두박질하기 시작해 22%대로 진입한 것이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수도 1983년 3명 중 1명에서 올해 5명 중 1명꼴로 줄었다. /하국영기자

오늘 부부의 날 우리 사랑 변치 않으리 부부의 날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강남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열린 '부부사랑 행복의 권장' 행사에서 참사랑 월천 부부로 당선된 세 쌍의 부부가 과거 사진을 보여주며 키스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뉴스

北단거리 발사체 또발사… 사흘째 무력시위

● 국방부는 북한이 20일 오전 11시 경오 오후 4~5시께 각각 단거리 발사체 1발씩을 추가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일 이후 사흘째 이어진 북한의 KN-02(지대지)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는 모두 6발로 늘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서기국 보도를 통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을 "정상적인 군사훈련"이라고 주장했다 /배동호기자

정부 "밀양 송전탑 공사 안전 최우선으로 진행"

●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 정책관은 20일 한국전력의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에 대해 "물리력 충돌이 생기면 양쪽 모두 어려워진다"며 "주민의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공사 현장 6곳 중 3곳에서 반대 주민과 한전측 인력이 충돌해 주민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여모(82)할머니는 경찰과 대치하다 알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유리기자

소년소녀 가장 4명중 1명 "부모 이혼탓 발생"

● 소년소녀가장 4명 중 1명은 부모의 이혼 때문에 가계를 책임지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울산대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소년소녀가장제도 개선 연구' 결과 소년소녀가장 754명 중 1명(24.7%)이 이같이 응답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년소녀가장 발생 원인으로는 부모 사망이 40.9%(308명)로 가장 많았다 /김유리기자

<대형마트 요구르트 판매>

매출 34% 떨어진 남양

일부품목 1위 자리 내주는 등 밀어내기·폭언 후폭풍 여전

남양유업 사태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남양유업 제품 판매량이 뚝 떨어졌고 감소폭 도한 커지고 있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의 강제적인 밀어내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A 대형마트에선 이달 들어 15일까지 남양유업의 흰 우유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7%, 요구르트 매출은 34.7% 줄었다 특히 떠먹는 요구르트 매출이 22.9% 떨어져 한국야쿠르트에 1위 자리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B 대형마트에선 4~15일 남양유업 제품 전체 매출이 12.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남양유업 제품의 불매운동 여파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 매출 변화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편의점 상황도 비슷하다 C 편의점의 매출을 2주 전과 비교한 결과 회사 측의 대국민 사과가 있던 지난 9일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10일에는 7.8% 11일 3.2%, 12일 10.9% 매출이 줄어들었다

반면 경쟁사인 매일유업의 전체 매출은 최고 15.6% 늘어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 편의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남양유업 사태를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대리점협의회 오늘 첫 단체교섭

한편 남양유업 사태에 돌파구가 터질지 주목된다 남양유업과 남양유업대리점피해자협의회가 21일 오후 첫 단체교섭에 나선다 협의회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요구 사항을 포함해 최근 5년여 동안 회사 측이 '밀어내기'로 공급한 제품 물량의 20%를 변상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어서 남양유업 측이 어떤 수용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호순기자 hs...@metroseoul.co.kr

오페라하우스 관할구역 신경전

중구 "해상 경계상 우리 구역" vs 동구 "매립 진행중…논의 적절치 않아"

부산 북항재개발지구 내에 들어서게 될 부산오페라하우스의 관할권을 놓고 시설 지역을 끼고 있는 지자체 간에 물밑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오페라하우스는 총 공사비 2629억원을 들여 북항재개발지구 내 해양문화지구(대지면적 2만8427㎡)에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18년 완공될 예정이다.

문제는 오페라하우스 입지가 부산 중구와 동구 지역에 걸쳐 있는 북항재개발지구의 가운데 위치해 관할권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양 지자체는 아직 공식적으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관할권 주장을 위한 자료 수집과 논리 개발에 한창이다.

이에 중구는 정부 산하의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유한 국가기본도상 중·동구 해상 경계(1973년 확정)를 근거로 오페라하우스가 관할 구역임을 주장하고 있다.

중구는 지난 2010년 6월 헌법재판소가 부산과 경남의 갈등을 유발했던 신항 관할 구역 조정을 하면서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상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지난 3월 말 정보공개를 통해 중·동구 해상 경계도를 확보, 오페라하우스 확보전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구는 아직 매립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할 구역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름 피서 미리 준비하세요 20일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5층 수영복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수영복을 고르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도시철도 채권 금리 0.5%P 인하하기로

부산시는 도시철도 채권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기 위한 '도시철도채권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시장금리 인하에 따라 도시철도 채권의 발행 이율을 현재 2.5%에서 2%로 낮추는 것이다.

시는 금리 인하로 내년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이자 부담이 33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도시철도 건설과 환경 개선을 위해 5년 거치 일시 상환율 조건으로 연간 1200억원가량의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2007년 발행된 채권의 이자로 지난해 163억원이 지출됐다. 조례안은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시의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부산항축제 공식포스터 선정

오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열릴 제18회 바다의날 기념 2013 부산항축제의 공식 포스터가 선정됐다.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는 '아시안 게이트웨이 부산항'을 슬로건으로 펼치는 올해 부산항축제 공식 포스터로 공모전 대상을 차지한 이슬비(26)씨 작품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작품은 부산항을 상징하는 파도, 컨테이너선, 요트, 등대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통해 역동적인 부산항과 부산의 대표적 해양형인 축제를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포스터 공모전은 전국 공모를 통해 접수된 총 62점 중 대상 작품을 비롯해 우수상 정혜진씨, 장려상 박성민씨의 작품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특선 6점과 입선 15점도 선정했다.

한편 2013 부산항축제는 부산항국제크루즈터미널과 국립해양박물관 일원에서 펼쳐진다.

사회복지시설 전기설비 점검 한전기술인협회 봉사 나서

부산시는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20일부터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부산시회와 함께 누전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설비 점검 및 보수에 나선다.

이번 전기설비 점검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부산시회 회원으로 구성된 전기안전관리 대행업, 설계업, 감리업체 등 20여 개 업체 80여 명이 무료 공공봉사를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들은 20일 오전10시 시청 앞 광장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 불량 차단기, 노후전등 및 절연불량 선로를 보수하거나 바꿔 달아 줄 예정이다.

이번 점검 및 보수는 전기설비 점검·수리가 필요한 사회복지관, 지역센터, 공동생활가정·아동센터 등 11개구의 시설 39곳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 등 월우이웃 60세대 등을 대상으로 펼친다.

문의 (051)636-5665

뉴타운 해제지에 '녹색 서구' 만든다

올해부터 10년간 1500억 투자

부산시는 서구 충무재정비촉진 사업 해제 지역을 친환경 그린도시 '녹색 서구'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환경부가 주관한 친환경 지속 가능한 도시 공모 사업에 부산시와 서구가 함께 참여해 부산이 최우수 도시로 선정되면서 구체화되고 있다.

녹색 서구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활용 ▲폐기물 및 자원 재활용 ▲주거지 그린인프라 구축을 통해 남부민동 일대의 노후 경사지와 충무동 일원의 재래시장, 또 남항 일대의 항만과 냉동창고 밀집지역을 복합적으로 재생하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 사업에는 단기 및 중장기 사업(2013~2023년)에 모두 1500억원이 투자된다.

우선 올해부터 내년까지 80억원(국비 56억원, 시비 24억원)이 선도 사업으로 투자되며, 올해 23억원을 투입해 부산대와 공동으로 전체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또 폐·공가를 활용한 하우스 프로젝트와 옥상 녹화 사업이 추진되고 기존 주택을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 추진방식은 산복도로 르네상스, 행복마을 사업처럼 마을 활동가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수미기자

119수상구조대 봉사자 모집

부산시 소방본부는 부산지역 해수욕장이 6월부터 개장함에 따라 119수상구조대원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발족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올해 7개 해수욕장에서 활약할 170명의 119수상구조대원을 소방본부 내부 선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차출, 구조대원별 근무지(해수욕장)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오는 24일부터 구조대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자원봉사자를 수상 구조와 수변 안전 분야로 나누어 모집한다.

수상구조요원은 익수자 감시와 인명 구조를 담당하게 되며 ▲수난 구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수난 구조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수난 구조 관련 대학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 과목 이수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또 수변안전요원은 백사장에서 수변 안전 순찰, 응급처치, 실종 미아, 해파리 쏘임 응급처치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며 봉사 정신이 투철한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문의 119.busan.go.kr

이대호 선수와 함께하는 '오사카 드림투어'

에어부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대호 선수와 함께하는 '오사카 드림투어'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에어부산은 지난해 이대호 선수와 홍보대사 후원 협약을 체결, 사회공헌활동을 공동으로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이대호 선수의 누적 홈런 개수에 따라 홈런 1개당 1명의 어린이를 매칭해 오사카 관광을 선물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이 프로그램을 통해 15명의 어린이에게 기회가 돌아갔다.

지난해 이대호 선수가 총 24개의 홈런을 기록해 남은 9개와 올해 현재까지 기록한 6개, 6월까지 추가 홈런을 예상해 올해는 20명의 어린이들에게 오사카 드림투어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오사카 드림투어는 6월 25~26일 1박2일 일정으로 마련되며, 이대호 선수와의 점심 식사와 야구 경기 관람, 교세라 돔 견학, 오사카 관광 등의 일정으로 꾸며진다.

이에 에어부산은 20~27일 홈페이지(airbusan.com)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야구와 이대호 선수를 좋아하는 중학생으로 한정된다. 문의 (051)410-0877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회장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부산지사장·지사 김형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9862

중소 광고회사 경쟁력 돕는다

부산국제광고제, 100인 미만 기업 대상 '애드 윈윈 프로그램' 참가접수

중소광고회사도 부담 없이 부산에서 개최되는 국제광고제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부산국제광고제 조직위원회는 21일부터 국내 광고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애드 윈윈(AD WIN-WIN) 프로그램'의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애드 윈윈 프로그램은 국내 광고시장의 99%를 차지하는 종시자 100명 미만의 중소 광고회사 임직원들에게 부산국제광고제 참관 및 홍보 부스 등을 지원하는 중소 광고회사 상생 프로그램으로 올해 처음 선보인다.

신청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의 광고 관련 업계 임직원 및 회사이며 심사를 통해 총 1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개막식·시상식 등의 공식행사와 세미나, 전시·상영관에 입장이 가능한 참관 비용 50% 할인 ▲개막 변천 네트워킹 파티 아외 가든파티 등을 통한 네트워킹 기회 ▲광고제 기간 중 무료 숙박(2인 1실) 등이다.

또 신청자가 속한 기업 중 5개사에는 자사 홍보를 위한 무료 홍보부스도 함께 제공한다. 프로그램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20일까지 광고제 홈페이지(www.adstars.org)에서 참가 신청하면 된다.

한편 부산국제광고제는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벡스코 및 노보텔 앰배서더 등 해운대 일원에서 개최된다.

/김수미기자 kam@metrobusan.co.kr

밀양 송전탑 공사현장 대치

20일 한전이 공사 일시중지 7개월여 만에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한 가운데 공사 현장인 시내 부북면 위양리 평밭마을 입구에 공사에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이 한전, 경찰 측과 편 거리에서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문화 콘텐츠 교육과정 부경대학교 국내 처음 개설

국내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해양문화 콘텐츠 전문 교육과정이 설치된다.

부경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2013년도 국내대학 콘텐츠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에서 '해양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해양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잠수 교육과 영상 교육, 수중촬영 교육을 접목한 이색 교육과정이다. 이 교육과정은 부경대의 특성화 학문 분야 가운데 6개 학과가 참여한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해양수산학, 잠수시술, 영상 촬영, 스토리텔링 등의 교육을 이론과 실습, 산학 협력을 통해 실시한다. 이로써 해양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드라마·영화·광고 등 각종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올해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7월부터 2개월간 단기 교육과정으로 개설되며, 장기적으로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될 계획이다.

20일 오전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소방경진대회에 참가한 직원들이 가상의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이날 소방경진대회에는 팀당 14명으로 구성된 5개 팀이 참가했다. /부산 롯데호텔 제공

실전처럼 화재진압…소방경진대회 열려

롯데호텔부산과 롯데부산면세점이 화재 예방을 위해 모였다.

20일 오전 롯데호텔부산과 롯데부산면세점이 합동으로 소방경진대회를 개최한 것.

이날 대회에서는 1시간30분가량 가상의 화재 상황을 만들어 실전처럼 화재를 진압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대회는 롯데호텔부산 4개 팀(조리, 식음, 객실, 지원)과 롯데부산면세점 1개 팀이 팀당 14명의 인원으로 구성해 출전했다.

우승은 호텔 식음팀에게, 준우승은 호텔 조리팀에게 돌아갔다. 한편 이 대회는 매년 11월 '소방의 날'에 진행되던 틀에서 벗어나 연중 화재 예방에 신경을 쓰자는 의미로 기획됐다.

내년 '월드IT쇼' 부산 개최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최대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시회인 '월드IT쇼'의 내년 행사를 부산에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와 연계해 개최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월드IT쇼는 2008년부터 매년 5~6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고 올해도 이달 21~24일 같은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이지만, 내년에는 ITU 전권회의 일정에 맞춰 10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게 된다.

ITU 전권회의는 전 세계 193개국 대표가 모여 ICT 정책을 결정하는 총회로, 내년 10월 부산에서 3주 일정으로 개최된다.

4년 주기로 열리는 이 회의가 아시아에서 열리는 것은 1994년 일본에 이어 20년 만이다.

스마트폰 친구찾기로 성범죄자 관리

기장경찰서 운영 눈길

부산 기장경찰서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은 성범죄 전과자들을 스마트폰 친구 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기장경찰서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 전과자 15명 가운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10명의 동의를 받아 여성청소년계 담당 직원과 친구 찾기 프로그램에 등록했다고 20일 밝혔다.

나머지 5명은 2세대(2G)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어 휴대전화를 교체하면 추가로 등록할 계획이다.

주로 연인이나 가족끼리 사용하는 친구 찾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전자발찌처럼 상대방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는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집중 관리하지만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서 빠지면 위치추적이 안 되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획됐다.

한편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도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은 성범죄 전과자는 전국적으로 5387명이고 부산에만 392명이 거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전거로 41층 빌딩 '등정'

metro Mexico

콜롬비아 바이크 선수 33분 기네스 기록 경신

콜롬비아 출신 바이크 트라이얼 선수 하비에르 사파타가 최근 멕시코에서 기네스 신기록을 달성했다. 사파타는 멕시코 할리스코 지방에 있는 높이 283m의 41층짜리 리우데 과달라하라 호텔을 자전거로 33분 이내에 주파했다.

바이크 트라이얼은 자전거로 불규칙한 코스를 주파하는 종목으로, 모터사이클을 이용한 모터 트라이얼에서 파생됐다.

사파타는 "이번 도전을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아내와 아들에게 바친다"며 "다음 도전은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800m 높이 빌딩 부르즈 할리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파타는 기네스 세계 기록을 6개 보유하고 있는 바이크 트라이얼 전문 선수다.

그는 콜롬비아 메데인에 있는 38층짜리 콜테헤르 빌딩, 콜롬비아 보고타에 있는 48층짜리 콜파트리아 타워,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있는 55층짜리 파르케센트랄 타워, 멕시코시티에 있는 60층짜리 마요르 타워, 중국 상하이에 있는 90층짜리 진마오 타워, 콜롬비아에 있는 610계단짜리 바위를 더 크타며 기네스 일쇄에서 신기록을 달성했다.

/정리=조선희기자

남자 대학생들 치마 입고 '활보시위'

metro Brazil

브라질 상파울루대학의 학생들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해 지난 14일 '치마 입는 날' 행사를 가졌다.

치마 입는 날에 남학생들은 블라우스와 치마를, 여학생들은 남성용 정장과 넥타이를 갖춰 입고 등교했다. 학생들은 18여 시간 동안 학생들은 상파울루대학 내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성 역할 고정관념 타파를 외쳤다.

이 행사의 시위는 상파울루대학에 다니는 남학생 바또르 허레이라에 의해 계획됐다. 그는 "페이스북에 치마를 입고 등교한 사진을 올렸는데 악플이 많이 달렸다. 여자만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자 이러한 이벤트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정리=장작현 인턴기자

유방암 환자 10% "암 때문에 실직"

metro Italy

이탈리아 여성 50만 명이 유방암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각한 것은 이들이 받고 있는 불이익이다.

최근 세나도에서 발표된 이탈리아 사회투자연구원(CENSIS)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방암 환자 중 10%가 암 진단 후 계약 만료, 해고 등으로 실직 중이다.

또한 이들 중 '발병 후 보상금 없이 실직되었다'는 응답이 3.4%, '전문 직종이나 상업, 수공업 직종임에도 그만두어야 했다'는 경우도 6.2%에 달했다. '치료 때문에 결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응답자는 42%로, 32.1%인 타 질환보다 높았다. '생산 효율이 떨어졌다'는 답은 33.1%였다. '업무를 분산시켜야 했다'는 응답도 16%로 타 질환자 6.2%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밖에 '업무 시간을 줄이기 위해 아르바이트 등으로 전환해야 했다'는 환자도 12%로, 4.3%인 타 질환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스테파니아 디 메르쿠리오 기자
정리=박가영 인턴기자

"야스쿠니 신사와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 대체 뭐가 다른가"

아베 '망언 폭주' 못말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에 빗대며 앞으로도 계속 참배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어페어스 최신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최근 인터뷰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질문에 "미국 국민이 전사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장소인 알링턴 국립묘지를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도 그곳(알링턴 묘지)에 가고, 나도 일본 총리 자격으로 방문했다"면서 "(미국 남북전쟁 당시의) 남부군 장병이 안장됐다고 해서 알링턴 묘지에 가는 게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건 아니라고 조지타운대학의 케빈 독 교수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야스쿠니 신사에 A급 전범이 안장된 이후 중국과 한국은 이곳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나는 앞으로 (야스쿠니) 신사 방문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위안부 정당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하시모토 도루 일본유신회 공동대표는 이날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나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하시모토 공동대표는 한 프로그램에서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며 "폭행·협박·납치를 국가적으로 행하고, 싫다는 여성에게 무리하게 (위안부 일을) 시킨 '성노예'로 몰리고 있다"며 "그것은 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시모토는 "세계 각국 군대는 제2차세계대전 때 같은 방식으로 여성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일본만 비판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상당수 일본 유권자들은 그의 발언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주말 3600가구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하시모토의 발언을 두고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하늘에서 본 인간탑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근 카탈루냐 지역에서 19일(현지시간) 인간탑 쌓기 축제가 열리고 있다. '카스텔'이라고 불리는 인간탑 쌓기는 이 지역 전통 축제로, 보통 하나의 탑을 쌓는 데 100~20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AP 연합뉴스

780만원이면 온라인으로 석사모 쓴다

미국 명문 조지아공대 전체 수업 온라인으로

미국의 유명 대학이 온라인 수강으로 학위를 취득하는 파격적인 제도를 신설했다.

19일(현지시간) AP 등 외신에 따르면 조지아공대가 오는 가을 학기부터 컴퓨터공학 온라인 석사 과정을 시작한다. 미국에서 정규 과정 수업 전체를 온라인에서 수강하고 학위를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석사 학위 취득에 드는 등록금은 7000달러(약 780만원) 이하로 책정될 예정이다. 이는 조지아공대 현 등록금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저소득층 자녀나 직장인의 교육 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조지아공대의 컴퓨터공학 온라인 석사 과정은 스탠퍼드대학의 세바스티안 스런 교수가 만든 온라인 강좌 개공 프로그램 유다시티(Udacity)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와 함께 미국 통신회사 AT&T의 지원으로 등록금이 저렴하게 책정됐다.

조지아공대는 올해 가을 학기부터 수백 명을 대상으로 첫 온라인 석사 학위 과정을 진행한 뒤 향후 3년간 신입생을 늘릴 계획이다.

/조선미기자

내년 리우 월드컵 경기장에 '로봇 병사' 배치

브라질이 내년에 열리는 월드컵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 '로봇 병사'들을 세운다.

20일 러시아투데이(RT)에 따르면 브라질은 리우 월드컵의 안전을 위해 미국의 군사 로봇 '팩봇'(사진) 30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팩봇은 탱크 바퀴로 이동하며 장착된 카메라로 경기장 곳곳을 살필 수 있다. 안전요원은 로봇이 보내온 영상을 통해 의심스러운 물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로봇의 대당 가격은 10만~20만 달러이며 총 구입 비용은 720만 달러(약 80억원)에 달한다.

브라질은 월드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9억 날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브라질은 이미 2500만 달러를 들여 이스라엘 무인기(드론) 4대를 구입했다.

/조선미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0810-중-23710호

손, 발 질환치료 왜 중요할까?

발가락질환 「무지외반증」 주의!

미니금속나사 교정 절골술로 치료가능 초기에 치료하면 치료만족도 높아

치료 전

치료 3개월 후

발가락 때문에 고민인 여성들이 많다. 특히나 맘에 드는 신발도 신을 수 없는 휘어진 발가락은 또 다른 콤플렉스가 되고 있다. 신발도 문제지만 엄지발가락 뼈 있는 부분이 아픈 것은 더 문제다.

이처럼 무지외반증 치료를 미루다가 엄지발가락 부분에 뼈가 튀어나와 신발을 신어도 아프고, 걸을 때도 아파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병명은 무지외반증이라 부른다.

무지외반증의 증상은 계속 아픈것은 아니지만 가끔가다 쑤실 때는 무척 아플 수 있다. 날씨가 따뜻할 때는 괜찮다가도, 추워지면 더욱 쑤시고 아프다. 오래 걸으면 발부터 허리까지 통증이 욱신거리기도 한다. 이러한 무지외반증도 수술하면 툭 튀어나온 부분 및 쑤시고 아픈 통증도 치료 가능하다.

여성들에게 발병 빈도 높아

오랜기간 하이힐이나 앞이 뾰족한 구두를 신는 여성들의 체중이 엄지발가락에 집중되어 발가락에 변형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무지외반증은 높은 빈도로 발병하고 있다.

무지외반증은 정상적인 발의 보행이 힘들면서 무릎과 허리에도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그럼에도 발가락의 작은 부분이라 하여 질병이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냥 체념한 채로 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로 인해 무릎과 허리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겨 고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부산에서도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치료 가능해

부산에서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등의 발질환을 주로 치료하는 대한민국 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엄지발가락은 인체에서 일종의 버팀목이자 지렛대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은 물론이고, 거동이 부자연스럽고 불편해지면서 자세도 비뚤어져 신체 여러부분에 질환을 앓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엄지발가락이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이동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신체부위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걷기에 있어 조그만 변화나 무리가 있으면 우리의 발은 신체에 즉각적인 이상신호를 보내게 된다. 엄지발가락이 휘었다고 부르는 '무지외반증'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으면서도 치료를 미루다 고통만 키우는 대표적인 엄지발가락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멀리 가지 않더라도 부산에서도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등의 발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미니금속나사를 이용한 무지외반증 치료

상태가 심하지 않다면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교정깔창을 사용해 통증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변형된 정도나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의 무지외반증의 치료는 〈미니금속나사 교정 절골술〉를 시술한다. 부산 당감동에 위치한 대한민국 정형외과 의원도 이 수술을 시행하는데 수술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엄지발가락 하단부위인 제1중족골 부위 한 곳을 절골해 엄지발가락의 위치를 바로잡는다. 이 때 뼈를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미니금속나사가 사용되는 것이다.

수술 부위에 맞는 미니금속나사를 선택해 부착하고 위치를 잡아주는 수술을 시행한다. 미니금속나사의길이는 약 1.8cm 이내로 짧다.

이준호 원장은 "미니금속나사는 부작용이 적고, 제거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며 "수술 후 미니금속나사를 제거 할 필요가 없어서 2차수술이 굳이 필요없어 환자들이 선호하는 편"이라고 설명한다.

시술 시 주의할 점은 간혹 시술 후 부종이나 동통, 부정유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준호 원장은 돌출한 뼈를 제거하는 '건막류 절골술', 중족골(발등뼈)의 변형을 교정하는 시술, 발가락뼈를 교정하는 시술, 늘어난 관절낭을 팽팽하게 만드는 '관절낭성형술' 등 네가지 수술을 복합적으로 시행하여 재발을 걱정도 적다. 수술은 부위마취로 이루어진다.

수술 후 회복되면 목발 없이 걸을 수 있다. 재활치료 및 회복이 빠르면서도 의료보험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환자들의 부담도 덜었다.

이준호 원장은 "무지외반증이나 내향성 족지발톱은 엄지발가락에 가해지는 고통도 크지만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몸이 스스로 자세를 변형시키면서 균형을 흐트려서 생기는 합병증도 주의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는 교정이나 수술을 통해 비교적 어렵지 않게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을 참기보다는 진단과 치료를 받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부산 대한민국 정형외과의원
문의 T 051)897-7582

※대한민국정형외과의원 홈페이지(www.대한민국정형외과.kr)를 통해 무지외반증, 지간신경종 이외에도 다양한 손과 발질환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오랜 경험과 수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손질환과 발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효과적인 치료와 빠른 회복을 위해 수부클리닉과 족부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 고운손과 편안한발을 위한 치료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market index <20일>

코스피	코스닥
1982.43 (-4.38)	567.32 (+1.28)

금리	환율
2.80 (+0.04)	1115.00 (-2.50)

뉴스&뉴스

전·월세 거래 7개월째 증가

● 전국 전·월세 거래량이 지난 4월에도 증가했다. 7개월째 증가세다. 아파트보다는 주택 거래량이 증가 폭을 키웠다. 국토교통부는 4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이 12만9702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5.4%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역별 전·월세 거래량은 수도권이 8만8000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4.4% 늘어났고 지방은 4만2000건으로 7.7% 증가했다. 아파트 거래량은 5만7922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2.1% 증가한 반면 아파트 외 주택 거래량은 7만1780건으로 8.3% 늘어났다. /김재정기자

비리 금융맨 350명 '징계'

● 올해 들어 각종 비리와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35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금융감독원이 20일 밝혔다.

고객 돈 횡령, 개인정보 유출, 차명 주식 거래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징계를 받은 인원은 은행이 1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사 81명, 저축은행 51명, 보험사 28명, 자산운용사 13명, 카드사 2명 등이다. 직급별로는 임원 40명, 직원 312명이다. /김현정기자

증권사 'MB맨 사장' 물갈이

● 금융지주에 이어 증권사 'MB맨'들도 대거 물갈이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MB맨으로 불리는 노치용 KB투자증권 사장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아 교체가 유력하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대표였던 시절 그의 비서실장을 맡았다.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사장은 오는 2015년까지 임기가 남아있지만 그를 임명한 이팔성 회장과 같은 고려대 출신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 외 증권사 사장들은 실적 성과에 따라 연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형석기자

다가오는 '달러당 110엔'시대…수출 비상

달러당 엔화 환율이 103엔 선을 넘나들면서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의 가격 경쟁력 하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20일 오전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02.80엔대에 거래됐다. 지난 17일에는 달러당 103엔 선까지 오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엔·달러 환율이 110엔 선까지 도달할 수도 있다고 내다본다.

엔화 약세로 일본과 경합하는 국내 철강·기계·전기전자 등 수출업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원·엔 환율이 10% 떨어질 때마다 2분기 한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한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엔저가 계속되면 한국이 일본에 경쟁 우위를 갖는 조선·휴대전화·디스플레이 분야까지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민정기자

전통시장서도 '스마트한 쇼핑'

포인트 적립받고 스마트폰으로 할인전단 확인
이동사들 시장 상인들에 IT솔루션 지원 바람

전통시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고 OK캐시백 적립을 받는다. 대형마트에서나 볼 수 있었던 광고 전단도 스마트 기기에서 볼 수 있다.

이동사들이 전통시장을 첨단 시장으로 바꾸고 있다. 최신 IT 기술을 이용해 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인들은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 대기업이 주도해 소상공인을 살리는 '윈윈' 효과의 좋은 예다.

SK텔레콤은 20일 인천시 주안동에 위치한 신기시장에서 이 시장의 상인조합과 '인천 신기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SK텔레콤은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을 제공하고 마케팅을 지원해 이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소상공인에게 고객 마케팅과 실적 관리 등을 도와주는 솔루션인 '마이샵', 스마트폰 기반 결제 솔루션 '박'을 시장 상점에 적용하고 OK캐시백과 연계한 '신기시장 전용 멤버십' 서비스를 만들 계획이다.

고객은 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쓸 수 있고 상인은 고객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할인 쿠폰을 발행하거나 경품 행사를 벌일 수도 있다.

SK텔레콤은 또 전자 지갑 서비스인 '스마트 월렛'과 스마트폰으로 할인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전단'도 이 시장에 도입한다.

최근 KT는 직원들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 단체 IT서포터즈를 내세워 전국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무료 IT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KT IT서포터즈는 전국 25곳의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하고 상인에게 스마트 기기 활용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QR코드 등 뉴미디어 활용법, 온라인 상점 개설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신기시장을 방문한 고객들이 포인트 적립 서비스를 받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만원 한장이면 끈소매·민소매티 4장 20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끈소매, 민소매티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친환경 '모달' 소재로 신축성과 통기성이 우수한 통 큰 끈소매, 민소매티(각 4장)의 1팩을 동자기 브랜드 상품보다 40%가량 저렴한 1만원에 판매한다. /연합뉴스

LG표 동반성장
중기에 연4000억 거래 개방

LG그룹이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동반 성장과 창조경제 실현에 힘을 보탠다.

LG그룹은 시스템 통합(SI)·광고·건설 등 3개 분야에서 연간 4000억원 규모의 계열사 간 거래 물량을 중소기업에 개방하는 한편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들어설 'LG 사이언스 파크'에 8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SI 분야에서는 2300억원 규모의 거래가 중소기업 등에 개방된다. 50%는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고 50%는 경쟁 입찰이 실시된다. 광고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이 1000억원 규모의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국현기자 kwlee@

'1조 클럽' 은행들 예대마진 장사 너무해

5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이후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금리를 낮췄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1% 전후 인하에 그친 데 비해 예금금리는 최대 0.3%까지 낮춰 예대금리 차이를 통한 손쉬운 이익벌이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국민·농협·신한·외환·우리·하나 등 7개 시중은행은 지난주 일제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내렸다. 한은이 지난 9일 기준금리를 2.50%로 0.25%포인트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 대출 상품(신규 취급 코픽스 연동 대출 기준)은 3.04%로 최저 금리를 보였고, 농협은행(3.06%)과 신한은행(3.24%)의 금리도 낮아져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게 됐다.

문제는 은행들이 대출금리보다 정기 예·적금 금리를 더 낮춰 저금리 속에서도 예대 마진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점이다. 시중은행들은 정기 예·적금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내렸다. 0.2%를 전후한 예대 마진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김준하 에듀머니 팀장은 "은행 수익과 직결되는 예대 마진이 상당히 크다"며 "서민들은 빚 갚느라 정신이 없을 때에도 6개 은행은 1조 클럽에 들어가지 않았나. 은행 이익 추구 전략으로만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고통을 나누기보다는 자사 이익만 우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지성기자 lazyhand@

게임회사 사회공헌도 '펀'

넥슨 찾아가는 '네티켓 수업'-엔씨소프트 '야구베팅장' 기증 등 이색적

"부모님 주민번호를 몰래 쓰지 않겠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공짜 앱 함부로 설치 안 할게요."

지난 16일 오전 서울 노원구 연촌초. 게임업체 넥슨의 '건강한 네티켓 수업'에 참가한 4학년 네 학급 120여 명의 학생들의 함성이 강당을 가득 메웠다. 이들은 팀을 나누어 '스마트폰 조절력을 위한 공 던지기', '올바른 정보에 화살 쏘기' 등 10개 프로그램을 즐겼다.

게임회사들의 사회공헌활동이 진화하고 있다.

단순한 물품 기부에서 벗어나 네티켓 교육, 야구장 기증, 길고양이 치료 등 게이머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적인 효과까지 노리는 노력이 잇따라 성과를 내고 있다.

넥슨의 '건강한 네티켓 수업'을 참관한 5반 담임 이은복 교사는 "이번 네티켓 수업은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직접 참여할 수 있어 학생과 선생님 모두 대만족"이라고 밝혔다.

3반 여유로(10) 학생은 얼마 전 계단에서 넘어져 목발을 짚었지만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여양은 "맨날 스마트폰 게임을 한다고 엄마한테 꾸중을 들었는데 오늘 수업은 책이나 동영상 교육보다 정말 재밌고 유익하다"면서 "크이(크레이지아케이드) 캐릭터와 함께 해 더욱 즐겁다"며 빨간색 '배찌' 인형에게 달려갔다.

넥슨은 올해 전국 초등 중학교 30개교 약 5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네티켓 수업을 벌일 예정이다.

넥슨뿐만이 아니다. 같은 날 엔씨소프트의 비영리 공익 재단 엔씨소프트문화재단은 부산에 위치한 소년의 집에 야구 배팅 연습 시설 '꿈놀이 야구장'을 기증했다.

최근 넷마블은 '다함께 퐁퐁퐁' 사랑의 발도장 캠페인을 열어 발도장 누적 개수에 따라 다친 길고양이들을 위한 치료 기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는 반려동물 보호 캠페인의 일환이다.

/유순혜기자 unique@metroseoul.co.kr

16일 연촌초에서 열린 넥슨의 '건강한 네티켓 수업'에서 학생들이 '사용하자 스마트폰 스마트하게' 프로그램에서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을 위한 공 던지기 활동을 하고 있다. /넥슨 제공

칸 영화제 스타들이 타는 SM5 할리우드 스타 니콜 키드먼이 르노삼성의 중형 세단 'SM5'에서 하차하고 있다. 르노삼성은 프랑스 칸에서 열리고 있는 '제66회 칸 영화제'에 SM5를 의전차량으로 제공 중이다. /르노삼성 제공

뉴스 & 뉴스

불황에 강한 브랜드 '신라면·참이슬·제주삼다수'

● 신라면·참이슬·제주삼다수가 불황에 강한 브랜드로 꼽혔다.

20일 브랜드 가치평가 전문회사인 브랜드스탁의 올해 1분기 BSTI(Brand Stock Top Index)에 따르면 신라면은 893.64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82.52점)보다 10점 이상 높아졌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전체 순위에서도 지난해 동기(29위) 대비 수직 상승하며 13위까지 올랐다.

참이슬도 지난해 1분기(895.56점) 18위에서 올해 1분기(898.95점)에는 12위로 올랐다. 생수 1위 브랜드인 제주삼다수도 지난해 1분기(882.84점) 대비 10점가량 상승한 891.02점을 얻어 전체 순위에서 18위까지 뛰어올랐다. /서희휘기자

"옵티머스G 프로, 갤노트Ⅱ의 멋진 대안" 美극찬

● LG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옵티머스G 프로'가 미국 최고 권위 잡지로부터 인정받았다.

미국 소비자 잡지 컨슈머리포트는 옵티머스G 프로를 "갤럭시노트Ⅱ의 훌륭한 대안"이라며 극찬했다.

컨슈머리포트는 20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리뷰에서 "옵티머스G 프로는 대화면 스마트폰의 현 챔피언인 갤럭시노트Ⅱ에 대한 훌륭하고도 더 값싼(more affordable) 대안"이라며 "스타일러스(S펜) 없어 손가락으로 갤럭시노트Ⅱ와 마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판매 가격은 2년 약정 기준 200달러(약 22만4000원)로, 갤럭시노트Ⅱ보다 100달러 더 저렴하다. /박성훈기자

2015년까지 이통 3사 기지국 2만2000곳 정비

● 이동통신 기지국 2만2000개가 정비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이통3사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이동통신 기지국 정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20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통 3사는 자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2015년 말까지 각사의 전국 약 2만2000개의 기지국을 정비하게 된다. 앞으로 이통 3사는 기지국 안테나 수량을 최소화하는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기지국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윤모기자

네이버 보란듯 예스24 'e연재' 오픈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네이버에 선전포고했다.

로맨스·판타지·무협소설 등의 인기 작가 신작을 단독 연재하는 디지털 콘텐츠 연재 플랫폼 'e연재(estory.yes24.com)'서비스를 20일 출시한 것.

네이버는 웹툰과 웹소설 코너에서 이른바 장르 소설을 인기리에 연재하고 있다. 인터넷 서점 권력이 네이버에 과감하게 짱돌을 던진 셈이다.

e연재가 소개하는 장르 문학 라인업은 눈길을 끌 만하다.

6월 초 개봉을 앞두고 있는 동명 웹툰을 영화화한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소설을 비롯해 포털 다음의 인기 웹툰 '황비린 말'을 이류 판타지 소설가 민소영이 재해석해 선보이는 등의 새로운 시도는 물론 류승현·이상혁·김재한·정연주·양효진·설봉·백승재·빈자혜 등 인기 작가의 신작을 단독 연재한다.

'얼굴 없는 작가'로 활동해온 듀나의 절판 도서 '면세구역'도 연재돼 독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e연재 작품 가격은 편당 50원부터 시작하며, 모든 작품은 5편 이상 무료로 제공된다. 특히 당일 등록된 연재물은 밤 12시까지 무료로 읽을 수 있다. /박성훈기자 zen@

'중산층 상징' 중형차가 안팔린다

올들어 판매비중 20% 붕괴

중산층 붕괴의 신호탄일까. 지난달 쏘나타·K5·SM5 등 중형차의 수요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중형차는 총 6만3804대가 판매돼 승용차량과 레저용 차량(RV)을 포함한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17.7%의 비중을 차지했다.

중형차 시장의 비중은 지난해까지 20%대를 꾸준히 유지했으나 올해 10%대로 떨어졌다. 중형차급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판매 1위 시장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신형 싼타페의 인기에 힘입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판매 확대로 6년 만에 역전을 허용하기도 했다.

중형차 시장의 축소는 쏘나타·SM5·말리부 등 기존 중형차 모델의 판매가 준 반면 경차의 판매 비중 확대와 RV 판매의 급증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차의 득세도 중형차 부진에 한몫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수입차는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5%가 넘는 수준이었으나 현재 12%에 달하고 있다. 중형차를 사려던 사람들이 조금 더 보태 수입차로 갈아탔다는 분석이다. /박성훈기자

개츠비처럼 휴가 보내려면…

올 여행지 1위 오른 미국 1920년대풍 호텔들 눈길

최근 한 온라인 여행사가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올여름 가장 떠나고 싶은 휴가지로 미국이 1위에 올랐다. 달러 약세와 저비용 항공사의 신규 노선 취항으로 저렴한 미국 여행이 가능해진 것도 큰 몫을 한 데다, 소설 '위대한 개츠비'가 영화화되면서 1920년대 미국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타임워프'라도 한 듯 1920년대의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한 고풍스러운 호텔도 인기다. 뉴욕에 위치한 4성급 호텔 '인 앳 그레이트 넥'은 소설 속 장면을 묘사해놓은 듯한 아르 데코(Art Deco) 양식 벽화부터 전통 미국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을 갖추고 있다. 1923년도에 지어진 '르 메르디앙 댈러스 스토너레이 호텔 앤드 스파'는 대리석 기둥, 수작업 유리 샹들리에 등으로 1920년대 상류사회의 호화로움을 재현했다.

인 앳 그레이트 넥

플랙스

2012년 세계 최고의 호텔로 선정된 바 있는 '플랙스'는 '위대한 개츠비' 영화 개봉을 축하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라이브 재즈 음악과 개츠비 테마 칵테일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1920년대 호텔에 대한 정보는 호텔스닷컴 홈페이지(kr.hotel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보람기자

아웃도어 '남산 홀릭'

볼더링·야간 트레킹·노르딕 워킹교실 등 업계 이벤트 줄이어

서울 남산이 5월을 맞아 아웃도어 천국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볼더링(바위 등반)부터 야간 트레킹, 워킹스쿨 등 남산의 접근성과 잘 정비된 환경을 이용한 아웃도어 이벤트가 잇따라 열리는 중이다.

아디다스 아웃도어는 25~26일 서울 남산 N서울타워 팔각정 광장에서 '2013 아디다스 락스타 서울 볼더링 대회'를 개최한다. 전문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다. 남녀 우승자에게는 상금 300만원을 비롯해 9월 13~14일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아디다스 락스타' 대회 출전 자격과 경비를 제공한다.

볼더링 대회 내내 디제잉 퍼포먼스가 함께 진행돼 익스트림 스포츠와 음악이 결합된 신개념 아웃도어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스포츠 브랜드 이젠벅은 다음달 5일 남산에서 야간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미드 나잇 챌린지 트레킹' 이벤트를 연다. 오후 9시 남산 국립극장에서 출발해 '런코스'(4km)와 '챌린지 코스'(7km)로 나눠 진행된다. 이젠벅 관계자는 "퇴근 후 레포츠 활동을 즐기는 젊은 직장인의 수요에 발맞춰 야간 트레킹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열린 '제1회 아디다스 아웃도어 락스타'에서 볼더링 선수들이 인조 바위를 오르고 있다.

세계적인 스틱 브랜드 레키를 수입 판매하고 있는 메드아웃도어는 남산 산책로와 양재천 일대에서 노르딕 워킹 오픈 클래스를 운영한다. 11월까지 첫째 셋째 주 화요일에는 남산에서, 둘째 넷째 주 화요일에는 양재천에서 오후 4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몸 근육의 90%를 활용하는 노르딕 워킹을 전문 강사가 직접 알려주며 운동에 필요한 스틱은 무료로 대여해준다.

아웃도어 업계 관계자는 "남산은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도심 속 자연으로, 유동 인구가 많아 업계 프로모션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고 전했다.

/권보람기자 kwon@metroseoul.co.kr

한식을 더 담고싶은 덴마크 왕실 도자기

로얄 코펜하겐 韓시장 강화

238년 전통의 덴마크 왕실 도자기브랜드 로얄 코펜하겐이 한국 시장 확대에 나선다.

한국 로얄 코펜하겐 오동은 대표는 20일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15년까지 총 8개 라인에서 한식 그릇을 출시해 한식 그릇의 라인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로얄 코펜하겐은 지난 1월 한국 시장에 한식 그릇을 단독으로 선보였으며, 출시 다음 달인 2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45% 매출 신장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제품 영역 확대를 위해 T2R(Table to refrigerator) 보관 용기 시장에 진출한다. 오 대표는 "밑반찬을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었다 꺼내 먹는 한국인들의 식습관을 고려해 뚜껑이 있는 저장 용기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 진출 20주년을 맞는 2014년에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를 발굴, 젊고 감각적인 '한국 전용 버전 도선보인다. /박지원기자 pjw@

던킨도너츠 '모닝 스타트업', 깨워드리고, 할인해 드려요!

아침 시간 '모닝 스타트업' 앱 활용 시 아침메뉴 최대 30% 할인

배고파도 밥 먹을 여유가 없는 직장인은 서럽다. 직장인 이민영(여·26)씨도 입사 후 새벽부터 출근하는 바람에 아침 식사를 거르기 일쑤다.

최근 한 조사기관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0명 중 4명이나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쁜 아침 시간에 식사를 챙겨 먹기 힘든 20~30대 직장인을 겨냥해 최근 식품업계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아침 메뉴를 앞다투어 출시하고 있다. 최근엔 스마트폰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까지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알람 확인 후 오전 11시까지 방문하면 최대 30% 할인

던킨도너츠는 아침에 알람으로 깨워주고 할인까지 해주는 앱인 '모닝 스타트업'을 출시했다.

알람 기능과 쿠폰 발급,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서비스가 특징이다.

▲알람 설정 후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도넛을 커피 속으로 드래그해 알람을 해제하는 '모닝 미션'을 성공한 후 ▲오전 11시까지 던킨도너츠 매장을 방문하면 할인 쿠폰이 스마트폰 속으로 자동 발급된다.

모닝 스타트업에서 발급받은 쿠폰으로는 베니니, 잉글리쉬 머핀, 브리또, 크림치즈 베이글 등 간편하고 든든하게 즐길 수 있는 모닝 메뉴와 커피를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즐길 수 있다. 베싸키도로 구매 시에는 추가 1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매장 도착 후 주파수 인식으로 쿠폰 자동 발급

특히 아침 시간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해 앱을 실행하기만 하면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는 주파수인 울트라사운드를 앱이 인식해 현장에서 자동으로 할인 쿠폰이 발급되는 점은 가장 큰 장점이다. 기존처럼 쿠폰을 스마트폰에서 내려받은 후 인증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줘 간편하고 편리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의 SNS와 연동해 모닝 스타트업 앱을 사용하면 본인의 앱 사용 기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앱 속 캘린더를 통해서는 기상 시간과 쿠폰 사용 내용을 볼 수 있어 체계적인 아침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 모닝 스타트업은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내려받아 이용 가능하다.

한편 던킨도너츠는 6월 3일까지 모닝 스타트업 애플리케이션 출시를 기념한 '모닝 알람 맞추고! 모닝 커피 마시고!' 이벤트를 실시한다. 모닝 스타트업 앱을 내려받고 알람을 설정하는 고객 10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아이스 아메리카노(S) 쿠폰을 증정한다. /전효순기자

더워 오기전 곰탕 한그릇

강강술래 보양식 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초여름 무더위에 지친 고객들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www.sullamall.com)과 전화 주문(080-525-9292)을 통해 건강 보양식품 파격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원기 회복에 좋은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세트(800ml 5팩·15인분)는 3만7800원, 소용량 세트(350ml 5팩·10인분)는 2만2000원 등 30% 할인가로 선보인다. 방부제·색소·조미료를 일절 넣지 않았고, 냄비에 붓고 끓이거나 봉지째 데워 먹을 수 있어 조리도 간편하다.

무공해 유기농 청정지역 백두산에서 재배된 생오미자를 우설당 착즙해 농축한 프리미엄 음료 '백두산생(生)오미자진액100'(30ml×30포·6만원)과 '농축액'(240g×2병·8만원)도 각각 1세트를 주문하면 1세트를 추가로 증정한다.

100% 한우 갈빗살로 만든 '참참한우떡갈비'(2세트·720g)도 39% 할인된 3만9000원에 판매하여 구매 시 블렌디드 흑임자와 국내산 돼지고기가 70%나 함유된 '흑임자한돈너비아니'(2세트·720g)를 덤으로 준다.

이달 말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매장 체험기나 가공식품(곰탕·육포·떡갈비 등) 시식 후기 또는 레시피를 작성한 후 홈페이지(www.sulla.com) 고객미당에 주소(URL)를 올리면 외식권·선물세트·냉면쿠폰 등 푸짐한 선물을 준다.

더카페 빙수 군침도네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에서 운영한 커피 프랜차이즈 더카페가 빙수 메뉴를 업그레이드해 '컵빙수' 3종과 '카페형 빙수' 2종을 새롭게 출시했다. 딸기·블루베리·크랜베리와 새콤한 요거트 소스를 넣은 '베리 요거트 빙수'와 우유 소스·팥·픽·아몬드 슬라이스를 넣은 '밀크팥빙수'는 5900원. 새콤달콤한 '베리요거트컵빙수', 고소한 곡물을 첨가한 '오곡컵빙수', 부드럽고 고소한 '밀크컵빙수' 등 컵빙수는 걸어 다니면서도 즐길 수 있는 형태로 선보인다. 가격은 모두 3500원.

이대병원 간센터의 하얀거탑들

유권 센터장 등 막강 의료진
생체 간이식 등 놀라운 행보

올해 초 개설된 이대목동병원 간센터가 간질환 치료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이 기존 소화기센터에서 분리해 운영하고 있는 간센터는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장을 지낸 소화기내과의 유권 센터장을 비롯해 문일환, 김태헌 교수 등 국내 최고의 간질환 권위자, 간이식 전문가로 꼽히고 있는 외과의 이봉국, 민석기, 홍근 교수 등 뛰어난 의료진으로 구성돼 있다.

이대목동병원 간센터는 간암뿐 아니라 급성 및 만성 간염과 간경변증, 간이식에 이르기까지 간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간암 수술, 간이식 등 첨단 수술 분야에서 차별화된 선도 역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화기내과·외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병리과·방사선종양학과 등의 전문의들과 유기적 통합 진료 시스템을 구축, 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한다.

특히 최근 간센터의 운영을 계기로 간이식 전문가의 영입을 통해 간이식팀을 보강함으로써 간이식 수술이 활성화되고 있다.

실제로 이대목동병원 간이식팀은 올 4월 생체 간이식에 이어 뇌사자 간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쳐 장기이식 분야의 진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권 센터장은 "앞으로 간질환 예방 노력과 함께 간암 및 간이식 분야도 주력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metro entertainment

star bag

새 음반에 예전 순심이 참여

3년 만에 컴백하는 **이효리**가 새 앨범의 트랙리스트를 공개했다.

앨범 출시를 하루 앞둔 20일 소속사 비투엠엔터테인먼트 공식 SNS에 공개한 리스트에는 일반적인 정규앨범 곡 수를 훌쩍 넘는 16곡이 올라와 있다. 앨범에는 래퍼 빈지노와 개그우먼 안영미, 슈퍼스타K 4 출신인 메이지의 박지용, 예전 순심이 등이 피처링으로 이름을 올렸다.

中 지진 피해자 돕기 1억 기부

가수 **김현중**이 중국 쓰촨성 야안시 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

그는 중국 인기 배우 이연걸이 설립한 원 파운데이션 재단에 성금을 전달했다. 이 사실은 재단이 중국의 SNS인 웨이보 공식 채널을 통해 알렸으며, 공지글은 17~20일 사이에 1만2000회 이상 리트윗됐다. 김현중은 지난해 12월 대한적십자사에 50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주얼리 브랜드와 콜라보

걸그룹 **2NE1**이 보석 브랜드 크롬하츠와 협작한다.

이들은 이달 29일부터 6월 27일까지 신세계백화점 모델로 활동하며, 백화점 내 크롬하츠 매장에는 2NE1이 기획하고 디자인에 참여한 상품이 공개된다. 국내 판매 기간 이후에는 해외 크롬하츠 매장에서 판매된다. 한편 2NE1은 다음달 새 앨범을 발표하고, 앞서 싱글은 28일 솔로로 데뷔한다.

'그 겨울' 홍보차 동남아행

배우 **조인성**이 동남아시아에서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를 홍보하기 위해 20일 3박 4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드라마는 최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동시 방영됐다. 소속사 관계자는 "첫 방송부터 현지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팬들의 성원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현지 유력 매체들도 조인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각잡힌 음악… 농익은 섹시

신화

국내 최장수 아이돌 그룹 신화가 데뷔 15주년을 맞아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 지난해 4년 만에 성공적으로 컴백한 이들은 16일 정규 11집 앨범 '더 클래식'을 발매하고 신화의 2막을 열었다. 최근 각종 예능에 출연해 시청자들을 한껏 웃겼던 멤버들은 인터뷰 자리에선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음악 이야기를 털어놨다.

#성숙해진 그룹의 11집 앨범

1998년 혜성처럼 데뷔한 후 15년이 흐르며 달라진 모습만큼이나 음악도 성숙해졌다. 역동적인 댄스음악을 선보이며 '칼군무'의 아이콘으로 사랑받았던 이들은 한층 깊어지고 절도 있는 음악으로 돌아왔다.

"클래식이라는 단어가 고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15년차 최장수 아이돌인 신화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클래식이란 단어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깊어지고 흥취가 있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신혜성)

이번 앨범은 10집의 타이틀곡 '비너스'를 작곡한 영국 뮤지컬 앤드류 잭슨 팀과 브리트니·아리사 등 세계적인 가수들의 히트곡을 작곡한 스웨덴의 유명 작곡가 사무엘 외모·로버트 베다니 등이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그중 앤드류 잭슨 팀이 만든 타이틀곡 '디스 러브'는 몽환적인 느낌의 도입부와 트렌디한 비트가 돋보이는 일렉트로니 장르다. '이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하얀을 살아가며 끝없는 사랑을 꿈꾼다는 내용을 담았다. 뮤직비디오도 싸이의 '강남스타일' 연출한 소녀시대의 '지' 등을 만든 조수현 감독이 맡는 등 제작진이 화려하다.

"멤버 각자의 취향이 다르지만 이번엔 수록된 열 곡 전부가 마음에 들어요. 무엇보다 신화 고유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과감에 변신을 꾀하는 점이 뿌듯합니다." (에릭)

특히 이들은 타이틀곡의 안무로 보깅댄스(모델 포즈에서 따온 손동작을 이용해 리듬을 표현하는 춤)를 도입, 색다른 변화를 꾀했다. 절제된 동작이 인상적인 안무다.

총괄인 이민우와 전진은 입을 모아 "30대의 감성미와 섹시미를 담았다. 가끔 아이돌이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준 적이 없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절제하는 동작 때문에 난이도는 높은데, 따라하기 좋은 안무라 팬들이 플래시몹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새 안무를 자랑했다.

#조돌돌 선배 같은 뮤지션 될 것

대화를 하면서 서로에게 무심한 듯 툭툭 말을 던졌지만, 말 속에는 15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강한 우정이 엿보였다. 8일 어버이날에는 전진이 멤버들의 부모에게 카네이션을 보낸 감동적인 사연이 있었다.

"새 앨범 준비를 앞두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였어요. 어버이날을 따로 못 챙겨드리고 어머니에게 전화만 한 통 드렸는데 전진이가 꽃다발을 보냈다. 고맙다고 전해 달라'는 말을 전해듣고 울컥했어요. 내가 아들 노릇을 못할 때 멤버들이 대신 해주니 가족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요." (에릭)

이민우는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멤버들이 자신의 일처럼 생각해준다. 그래서 신화가 오래갈 수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부럽다'는 주위 동료들의 말을 들으면 뿌듯하다"고 신화의 장수 비결을 설명했다.

지난달 말 KBS1 일일극 '힘내요, 미스터김'을 끝낸 김동완은 이 말을 듣고 "혼자 외연 활동할 때는 신화로 활동할 때는 안 싶었다"면서도 "나는 아직 멤버들의 걱정을 받아보지 못했다. 조만간 사고 쳐서 걱정을 받아보고 싶다"고 농담해 웃음을 자아냈다.

15년차에도 인기는 K-팝 한류를 이끄는 후배 아이돌 못지않다. 지난해 7월 아시아 투어를 성황리에 마친 이들은 올해도 아시아 정벌 길에 나선다. 다음달 8일 홍콩을 시작으로 중국, 싱가포르, 대만, 일본, 중국, 한국 등을 도는 아시아투어를 펼친다.

"2PM이 우리를 롤모델이라고 해 참 뿌듯했어요. 여전 실력 있는 그룹과 함께 활동하는 건 경쟁 심리가 들기보다는 기분이 좋은 일이죠. 그러나 후배들을 보면 신화도 계속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용필 선배처럼 오래될수록 더 그리워지고 가치 있어지는 뮤지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이민우)

/최현정기자 lulu947@metroseoul.co.kr
사진/신화컴퍼니 제공·디시전/렉시딩

보깅댄스 도입 '파격' … 장수 비결은 챙겨주기
2PM이 우리를 롤모델이라 하니 참 뿌듯해요

부산과학기술대학교 · 부산시 북구청

참살이실습터 국비무료교육생 모집

성공적인 취업·창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강의, 재료비, 기자재 등 전액무료!!
교육수료 후 취업·창업 지원

무료로 교육받고 바로 취업·창업하자

부산과학기술대학교는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이 주관하고
부산광역시 북구청에 지원하고 있는
참살이 실습터 지원사업 추진 기관으로 선정되어
다음과 같이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모집분야 및 교육기간

모집분야	모집인원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장소	비고
와인소믈리에	26	2013.6.25~2013.8.20 13:00~17:00 매주 화 수 목 3회(총8주)	[illegible] 와인이론, 와인실습	부산과학기술대 칠우관 201호	교육장보금 30만원 납부 (교육시간 80% 이상 출석시 전액 환불됨)
투어플래너	30	2013.7.01~2013.8.30 13:00~18:00 매주 화 수 목 3회(총8주)	고객분석, 고객서비스 여행상품 기획과 개발 [illegible]	부산과학기술대 칠우관 406호	
복지건강운동전문가	20	2013.7.01~2013.8.30 13:00~14:50 매주 월~금 5회(총8주)	운동처방, 스포츠마사지 수중재활 필라테스 [illegible]	부산과학기술대 체육관 5307호	
푸드코디네이터	20	2013.7.01~2013.8.05 9:00~13:00 매주 월~금 5회(총5주)	푸드스타일링 기본연출 테이블코디네이션	부산과학기술대 율원관 2104호	
네일아티스트	20	2013.7.01~2013.8.05 13:00~14:30 매주 월~금 5회(총5주)	네일케어 및 기본 네일자격증 실기대비	부산과학기술대 백향관 3803호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살이 실습터란?

"참살이"란 창조적인 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 등을 주로 생산요소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Well-being분야를 말하며 참살이 관련 전공자, 초급기술자, 경력단절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실습, 창·취업 연계 등 참살이 서비스 창조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프라를 수행하는 실습터를 말합니다.

교육생 모집 및 선발 절차

- 대 상: 졸업자 / 분야별 종사 경험자 및 창업 준비자 / 분야별 자격증 소지자 우대 (기초수급자, 새터민, 다문화가정 / 신청분야 취업 및 창업 의지가 있는 자 우선 선발)
- 교육비: 무료
  ※ [illegible]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교육 담보금은 면제됨
- 모집기간: 2013.5.13(월)~2013.6.5(수)
- 면 접: 분야별 면접실시 (2013.6.10~6.14)
- 선발방법: 신청서 작성, 창·취업 계획서 작성하여 제출 (신청서는 www.[illegible].ac.kr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접수방법: 방문접수, E-mail접수, Fax접수(e-mail : [illegible]@bist.ac.kr)
- 문 의: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참살이사업단 (Tel:051 330-7281 Fax:051 335-3844)

칸 마켓 화두는 음악·뮤지션

다큐 '듀란듀란 언스테이지드'·3D '메탈리카 스루 더 네버' 등 신작 쏟아져

FESTIVAL DE CANNES

유명 가수들이 직접 출연했거나 이들을 다룬 신작들이 지구촌 최대의 영화 장터에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

제66회 칸 국제영화제의 부대행사로 열리고 있는 올해 마켓에는 뮤지션들이 주인공인 영화가 유독 많다. 이 가운데 세계적인 헤비메탈 밴드 메탈리카의 공연 실황과 공연 스태프의 좌충우돌 모험극을 한데 섞은 3D 영화 '메탈리카 스루 더 네버'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바이어들로부터 구매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이들은 8월 내한 공연을 앞두고 있어, 공연 열기가 흥행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한국 바이어들의 물밑 수입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품 홍보를 위해 직접 칸을 찾은 메탈리카의 드러머 라스 울리히는 개막 이틀째인 16일 마련된 마켓 시사회에서 상영 전 무대에 올라 과묵한 로커답게 "입 닥치고 재미있게 봐"란 한마디를 남기고 퇴장해 바이어들의 웃음과 환호성을 자아냈다.

거장 데이빗 린치는 1980년대 영국 꽃미남 밴드 듀란듀란의 공연 준비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듀란듀란 언스테이지드'로 왔다. 또 디스코 뮤지션 도나 서머와 빌리지 피플을 발굴한 뒤 서른이홉 살에 암으로 사망한 음반 제작자 닐 보가트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그린 '스피닝 골드'가 저스틴 팀버레이크 주연으로 제작된다. 장편 경쟁 부문 진출작 '인사이드 르윈 데이비스'의 조연 자격으로 칸을 방문한 팀버레이크는 '…골드'의 제작 착수를 알리는 등 바쁜 시간을 보냈다.

이 밖에도 2년 전 스물여덟의 나이로 요절한 여성 뮤지션 에이미 와인하우스와 영국을 대표하는 '건반 위의 황제' 엘튼 존의 일대기도 각각 영화화된다. 이 같은 유행에 대해 칸 마켓 뉴스는 "음악 혹은 뮤지션을 소재로 한 영화들의 제작과 사전 세일즈는 올해 칸 마켓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전했다.

/칸=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메탈리카

데이미와인하우스

wind8686@naver.com

<거장 코엔형제 작품>

'…데이비스' 깊은 여운 그대로

1960년대 뉴욕 무대로 무명 포크가수 꿈 그려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의 영예인 황금종려상 한 번에 감독상만 무려 세 번이나 받은 감독의 신작은 과연 어떨까. 칸의 '단골손님'이자 '파고'로 잘 알려진 코엔 형제의 66회 장편 경쟁 부문 진출작 '인사이드 르윈 데이비스'(사진)가 지난 주말 프랑스 칸의 드뷔시 극장에서 베일을 벗었다.

이 영화는 1960년대 미국 뉴욕의 그리니치 빌리지를 무대로 활동하는 무명 포크 가수 르윈 데이비스(오스카 아이작)의 일상과 꿈, 좌절을 잔잔하게 그린다. 주인공 데이비스는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의 인물로 몇몇 동료 뮤지션들과 교류하고 때론 그들 중 한 명의 노래 실력을 비웃기도 하는데, 이 중에는 당시를 풍미했던 피터 폴 앤 메리와 밥 딜런도 있어 보는 이들의 웃음을 자아낸다.

별것 아닌 장면으로도 깊은 여운을 남기는 특유의 연출 솜씨는 여전하다. 데이비스가 도망 다니는 고양이를 쫓아다니는 장면은 꿈을 이루려 노력하지만 좌절하기 일쑤인 캐릭터의 처지를 단적으로 무척 쉽고 편하게 설명한다. 그러나 징검다리 식으로 수작과 졸작이 교차하는 그동안의 필모그래피에선 빛이 나지 못한다. 존 웨인 주연의 원작을 자신들만의 감성으로 리메이크해 서부극의 새로운 전형을 과시했던 전작 '더 브레이브'에 비해 힘을 주지 않아 쉬어가는 느낌이 진하다.

그러나 수상 0순위 예약까진 아니어도, 명불허전은 분명하다. 매번 칸이 이들에게 손짓하는 이유를 알게 해주는 '…데이비스'다.

/칸=조성준기자

예는 다르다!

즐거워 예는 83년 전통의 향토 기업인 대선주조에서 최첨단공법과 최신위생설비로 만든 저도 소주입니다. 수돗물이 아닌 기장 삼방산 지하 220m 자연이 만들어낸 순수한 천연암반수 100%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즐거워 예에 들어있는 토마린은 아프리카 열대심림지역에서 자생하는 열매로부터 추출되며 기존의 첨가제와는 차원이 다른 초고가의 자연추출 성분으로 소주의 풍미를 더해줍니다. 최고 수준의 재료만 사용하는 즐거워 예는 부담없고 부드러우며 소주의 감칠맛을 충분히 살린 16.7도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즐거워 예는 마실때는 물론 다음날 아침까지 생각한 고급 소주입니다.

C1

〈자매품〉

대만·말련 뒤흔든 K-팝

보아·동방신기 콘서트 열어

한류 아이돌의 원조 보아와 동방신기가 각각 대만과 말레이시아를 K-팝의 물결로 뒤덮었다.

보아는 18일 대만에서 첫 단독 콘서트 '보아 스페셜 라이브 2013-하어 이어 웰-인 타이베이'를 열고 3000여 팬을 불러모았다. 현지 팬들은 처음 단독 공연을 여는 보아를 보기 위해 공연 전날 공항에 대거 모여드는가 하면 취재진도 거세게 북새통을 이뤘다.

보아는 세계적인 여자 팝 솔로 가수와 같은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댄스·록·발라드를 망라한 23곡을 열창했다. 동방신기는 같은 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밴라와티 인도어 스타디움에서 '동방신기 라이브 월드투어-캐치 미'를 개최했다. 총 26곡을 선사하는 내내 관객들은 동방신기를 상징하는 펄 레드 야광봉을 흔들며 한국어 노래를 유창하게 따라불렀다. /유순호기자

싸이 '빌보드 어워드' 본상

'강남스타일'로 비디오 부문 수상… 진행자 모건과 댄스배틀도

'월드스타' 싸이가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싸이는 20일(한국시간)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빌보드 뮤직 어워드 2013'에서 세계적인 히트곡 '강남스타일'로 톱 스트리밍 송 비디오 부문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톱 스트리밍 송 비디오 부문은 유튜브와 SNS 등 인터넷에서 가장 많은 조회 수를 기록한 뮤직비디오에 주어지는 상으로 싸이는 테일러 스위프트·칼리 레 젭슨 등 쟁쟁한 팝스타들을 압도적인 차로 제치고 트로피를 차지했다.

빌보드 뮤직 어워드는 '그래미 어워드'·'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와 더불어 미국을 대표하는 음악 시상식이다. 싸이는 지난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뉴 미디어' 상을 받았지만 이 상은 당시 신설된 특별상이다.

싸이는 이번 시상식에 톱 스트리밍 송 외에 '톱 뉴 아티스트'·'톱 랩 아티스트' 등 모두 6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지만 다른 부문에서는 아쉽게 수상에 실패했다.

이날 크리스 브라운의 무대를 소개하기 위해 특별히 무대에 오르기도 한 싸이는 시상식 진행자인 트레이시 모건과 함께 댄스 배틀을 벌여 웃음을 선사했다. 모건은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의 유재석 분장을 하고 등장해 싸이와 함께 코믹한 춤을 췄다. 또 모건은 "너의 새로운 춤 공장히 섹시하다"고 칭찬했고, 싸이는 '시건방춤'을 추며 화답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싸이와 경합했던 테일러 스위프트가 8관왕(톱 빌보드 200 앨범·톱 빌보드 200 아티스트·톱 female 아티스트·톱 디지털 송 아티스트)에 올랐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싸이가 빌보드 뮤직 어워드 2013에서 트레이시 모건의 특별무대를 꾸미고 있다. /AP 연합뉴스

"B.A.P 보자" 3000명 뉴욕에 몰려

신예 아이돌 그룹 B.A.P가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를 들썩이며 차세대 K-팝 스타임을 입증했다.

'B.A.P 라이브 온 어스 퍼시픽 투어'를 진행 중인 이들은 17일 타임스스퀘어에 위치한 MTV 스튜디오에 출연해 공연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행사장에는 오전 이른 시각부터 인파가 몰려들었고, 레드카펫이 예정된 오후 7시에는 3000여 명이 도로를 뒤덮었다.

뉴욕 경찰은 30명이 넘는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구급차를 준비했다. MTV 측은 캐딜락 리무진과 20명 이상의 개인 경호원, 100명 이상의 스태프를 동원해 B.A.P를 특별히 대우했다.

B.A.P는 LA·샌프란시스코·워싱턴·뉴욕 등 4개 지역에서 미국 투어를 열었고, 일본·대만·홍콩에서 공연한다. /유순호기자

비도 못막은 클래지콰이 공연 열기

'그린플러그드' 피날레 장식… 호란 노메이크업 무대

클래지콰이가 데뷔 10년만에 색다른 경험을 했다.

클래지콰이는 18일 한강 난지공원에서 열린 '그린플러그드 2013'에 헤드라이너로 출연했다. 17~18일 열린 페스티벌의 피날레를 장식한 클래지콰이 공연은 오랫만의 페스티벌 무대라 많은 팬의 관심을 끌었다.

오전부터 내린 비로 관객들은 우비를 둘러쓰고 공연을 관람하며 클래지콰이의 무대를 기다렸다. 오후에 잠시 뜸했던 빗줄기는 클래지콰이 공연순서를 앞두고 더 굵어졌고, 클래지콰이는 빗줄기 속에서도 끝까지 기다려준 팬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2집 수록곡 '필러 유어 소울'을 시작으로 '러버 보이'·'원 디스 다이트' 등 특유의 일렉트로닉 사운드로 야외 공연장을 거대한 클럽으로 만들었다.

재킷을 벗어던진 알렉스는 "대단한 분들이다. 이 빗속에 우리도 더 힘이 난다"며 연신 엄지를 들어올렸다. 공연 중반부에 들어서면서 호란은 "여성 메이크업의 핵심인 마스카라가 다 녹아내렸다. 데뷔 10년만에 노메이크업으로 무대에 선다"며 열정적으로 무대를 이어갔다.

클래지콰이는 24일 대만으로 출국해 쇼케이스 프로모션과 26일 현지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유순호기자

박건형·박광현·한지상·바다·김선영(왼쪽부터 시계 방향)

박건형·바다 뮤지컬 '스칼렛 핌퍼넬' 남녀 주인공

박건형과 바다가 7월 국내 초연할 뮤지컬 '스칼렛 핌퍼넬'에 남녀 주인공으로 출연한다.

20일 제작사 CJ E&M에 따르면 낮에는 유머와 재치가 넘치는 한량 귀족으로, 밤에는 정의를 수호하는 히어로로 이중 생활을 즐기는 퍼시·스칼렛 핌퍼넬 역에 박건형·박광현·한지상의 출연이 확정됐다.

아름다운 외모와 심성을 지닌 채 퍼시와 진실한 사랑을 하는 마그리트 역은 바다와 김선영이 번갈아 연기한다. '스칼렛 핌퍼넬'의 목숨을 노리는 공포 정치의 권력자이자 그와 마그리트 사이에서 미묘한 삼각관계를 형성할 쇼블랑은 양성모와 에녹이 맡았다.

이 뮤지컬은 헝가리 출신의 영국 작가 바로네스 에무스카 오르치(1865~1947)의 동명 시리즈 소설이 원작이다. '지킬 앤 하이드'를 작곡한 프랭크 와일드혼이 참여해 1997년 뮤지컬로 브로드웨이에서 첫 선을 보였다.

국내에서는 7월 6일 LG아트센터에서 개막한다. 문의 1577-3363 /박진현기자

paldo30

팔도 30주년

바람과 초원의 나라 몽골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상 팔도제품 애용하는 모든 고객

기간 2013년 3월 ~ 7월까지 (몽골여행 8월말)

경품 몽골여행(총 130명), 팔도라면 전용사각냄비(30,000명) 등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 www.paldofood.co.kr / 이벤트 문의 1661-4247

EVENT 1

구매영수증 입력하고 몽골가자!

100명

팔도 제품을 구매하고 영수증에 적힌 구매처와 구매날짜를 입력하세요.

EVENT 2

사연 및 인증샷 올리고 몽골가자!

30명

팔도와 관련된 색다른 에피소드를 사연이나 인증샷으로 응모하세요.

티아라엔포 '전원일기' 美 간다

다섯가지 버전으로 출시

걸그룹 티아라의 유닛 티아라엔포(은정·효민·지연·아름)가 한국 전통의 소재와 음악을 살린 '전원일기'를 들고 미국에 진출한다.

티아라엔포는 20일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방문 성과를 공개했다. 세계적인 팝스타 크리스 브라운의 초청으로 12~15일 미국에 다녀온 이들은 엠파이어 레코드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달 미국에서 데뷔 음반 '전원일기'를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크리스 브라운을 비롯해 티페인·스눕독·레이 제이·위즈 칼리파 등 세계적인 래퍼들이 각각 피처링한 다섯 가지 버전의 '전원일기'를 출시한다. 앨범 발표에 앞서 26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크리스 브라운의 단독 콘서트 오프닝 무대에도 오른다. 30일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BET 어워즈에 브라운과 함께 레드카펫을 밟는다.

은정은 "'전원일기'에 들어간 태평소 소리를 현지인들이 정말 좋아하더라. 크리스 브라운은 태평소 연주자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며 "뮤직비디오도 새로 제작해 더 좋은 미국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티아라엔포는 미국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풀스크린사로부터 전용 채널을 약속받고, 신발 브랜드 퓰라도로부터 팀 로고를 이용한 신발 제작 제의도 받았다고 밝혔다. 비욘세·스눕독 등의 음악을 만든 프로듀서팀 1500 or NOTHIN과는 곡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순호기자 suna@

100억 소녀 질문에 수지 눈물

'구가의 서' 기자간담회

이승기 "나쁜 손? 대본에 충실했어요"

MBC 월화극 '구가의 서'에 출연 중인 수지가 드라마 기자간담회 도중 눈물을 펑펑 쏟았다.

20일 경기도 안산 MBC드림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그는 광고를 많이 찍어 '100억 소녀'로 불리며 큰 주목을 받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많이 사랑해줘서 좋지만 그만큼 책임감이 커지고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답한 후 머뭇거렸다.

이에 옆에 있던 이승기가 "도와줄게"라며 마이크를 넘겨받아 "저도 광고를 많이 찍을 때가 있었다. 100억 원을 번다는 말이 나오면 엄청난 부자로 생각하는데 기사에 난 것처럼 '대박'은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이어 "수지가 안쓰럽게도 촬영 쉬는 시간까지 광고 촬영에 할애하더라. 많이 힘든 것"이라고 위로했다.

이승기의 말을 듣던 수지는 갑자기 눈물을 쏟아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과 취재진을 놀라게 만들었다. '왜 울었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함께 자리한 유동근은 "수지가 연기 중인 담여울 역에 몰입해서 그럴 것"이라는 말로 배려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이승기는 '나쁜 손' 신에 대해 해명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6일 방송된 9회에서 최강치가 남장을 한 담여울이 여자라는 것을 눈치 채는 장면이 그려지면서 이승기가 수지의 가슴에 손을 얹은 바 있다.

이승기는 "(남성팬들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다. 해명이 뭐가 필요하겠느냐"면서 "대본과 현장 연출에 따라 사심 없이 최대한 연기하려고 노력했다. 방송이 끝난 후 작가님에게 '장렬한 희생 고맙다'는 문자를 받았다. 나 하나 희생해서 드라마 잘 될 수 있으면 된다"고 말하며 웃었다. /박현택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자신감 넘치는 오바마처럼 토론·강의 하려면

신문기사 소리내 읽어라

이국명 기자의 투잡 강의 체험기
취업전문강사 ⑫

2008년 미국 대선은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와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의 시선 처리에서 승부가 갈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커리어 제공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와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2008년 미국 대선. 여론조사에서는 한때 오바마가 지지율에서 15%나 뒤지며 불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강의 전문가들의 눈에는 TV 토론에서 드러난 매케인의 약점이 심상치 않았다고 한다. TV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감을 한껏 뿜냈던 오바마에 비해 매케인의 시선은 흔들리며 아래로 자주 향했다는 지적이다. 이 작은 차이가 대선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였다면 믿을 수 있을까.

본격적인 강의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지난 14일 수업에는 이 같은 흥미로운 사례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당시 TV 토론 사진을 비교해보는 슬라이드에서는 수강생들의 감탄이 터져 나올 정도였다.

눈빛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오바마와는 달리 자신감 없이 시선을 떨군 매케인에게서는 패배의 그림자가 이미 드리워진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혹시 나도 강의를 할 때 매케인처럼 시선이 아래로 향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다.

오바마와 같은 자신감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청중(people)·목적(purpose)·장소(place)인 3P 분석을 통한 철저한 준비는 기본이다. 유연한 제스처와 시선 처리도 연습해야 한다. 청중을 향하는 주시율을 85% 이상 유지하면서 시선을 골고루 이동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책상에 거울을 놓고 말하는 틈틈이 바라보면 도움된다는 설명이다.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가다듬는 노하우도 흥미롭다. 복식호흡을 통해 매일 일정 시간 이상 신문 기사를 소리 내어 읽는다면 청중을 사로잡을 수 있는 목소리를 가꿀 수 있다고 한다.

사춘기 이후에는 거의 보지 않았던 거울을 바라보며 복식호흡을 연습해야 한다니 쑥스럽긴 하지만 틈틈한 강사가 되기 위한 노하우가 생각보다 쉬운 것 같아 일단 마음이 놓였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동남아 근무할 직원 뽑아요

이번주 채용기업

posco 포스코

포스코는 유라시아와 미주지역, 아프리카와 시베리아, 남극·북극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가고 있다. 이러한 회사의 비전과 직원의 비전이 같은 곳을 향할 수 있도록 직원 개인 비전을 수립·실행할 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직원들이 주인 의식을 가진 지식 근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포스코는 고객 지향, 도전 추구, 실행 중시, 인간 존중, 윤리 준수의 5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열린경영, 창조경영, 환경경영을 하고 있다. 신뢰와 소통의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일과 삶이 조화되는 행복한 일터를 조성해 직원들이 주인 의식과 창의력을 가진 전문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포스코는 동남아지역(싱가포르·인도·인도네시아·태국)에서 근무할 직원을 채용 중이다.

대상자는 2014년 2월 이전 해당 지역 학사 이상 졸업자면 가능하다. 24일까지 포스코그룹 채용 홈페이지(gorecruit.posco.co.kr)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커리어 제공

취업포털 커리어와 함께하는

주간 인기 취업검색어

1위 공기업 인턴
2위 [illegible] 채용
3위 정규직 전환율
4위 1분 자기소개
5위 행정사 시험

*4/30~5/6일 검색 순위

주간 채용캘린더

날짜	기업
21(화)	오토리브(경력), 르노삼성자동차(주), 현대백스터공조(주)(신입·인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2(수)	(주)공락소스미스블라인드GS(신입·인턴), (주)빙그레(신입), 정보체력 한국기계
23(목)	손해보험협회, 한국투자증권, 삼아제약(주), 롯데그룹, 한화갤러리아
24(금)	IBK기업은행(계약), 호스코 동화홀딩스(주), 한국센트럴아남플라스틱
25(토)	삼성중공업(공채), STS 반도체통신
26(일)	SPC 그룹(신입), 한국화이자제약(주), LG유플러스, 한신대학교
27(월)	중부도시가스(주)(신입), (주)신세계푸드(신입·인턴), 순천대학교, 르스지텔(신입)

* 서류마감일 기준
* 자료제공: 커리어(www.career.co.kr)

배상문 PGA 우승 쐈다!

최경주·양용은 이어 3번째 2년간 투어 출전권도 획득

배상문(27)이 한국, 일본에 이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도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배상문은 20일 미국 텍사스주 어빙의 포시즌스TPC에서 열린 바이런 넬슨 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키건 브래들리와 접전 끝에 2타 차로 제쳤다.

4라운드 초반 버디 4개를 잡아내며 상승세를 탄 배상문은 이후 더블보기 1개, 보기 2개를 쳐내며 타수를 까먹기도 했지만 16번홀의 짜릿한 버디로 우승을 확정 지었다. 최종합계 13언더파 267타.

2008년과 2009년 한국프로골프 투어 상금왕에 올라 국내 무대를 제패한 배상문은 2011년 일본 무대에서도 상금왕을 차지했다. 이어 2012년 PGA 투어에 입문해 2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기쁨을 누렸다. 우승상금은 117만 달러(약 13억원)다.

PGA 투어 우승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최경주, 양용은에 이어 세 번째다.

배상문은 경기 후 "꿈꿔오던 일이 현실로 이뤄져 행복하고 흥분된다"며 "초반 드라이버나 퍼트가 좋아 자신 있었고 16~18번홀에서 주춤하기도 했으나 내 플레이를 하고자 집중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안았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배상문은 이번 우승으로 2015년까지 PGA 투어 출전권을 확보했다. 또 4대 메이저대회 중 6월 11일 막을 올리는 US오픈과 8월 6일 개막하는 PGA 챔피언십 출전이 가능하다.

이어 페덱스 랭킹이 지난주보다 무려 77계단 상승한 18위(769점)를 기록해 이를 유지하면 7월 14일부터 영국 스코틀랜드 뮤어필드에서 벌어지는 브리티시오픈에도 출전할 수 있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샴페인 대신 물세례 배상문(왼쪽)이 20일 PGA 투어 바이런 넬슨 챔피언십에서 우승하자 노승열이 물을 뿌리며 축하해주고 있다. /AP 연합뉴스

'SUN'의 삼성·KIA 엇갈린 행보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선동열 KIA 감독은 삼성 지휘봉을 잡았던 시절 거물급 외부보강을 피했다. 당장 성적을 올리기는 좋지만 장기적으로 체질 강화에는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지론이었다. 김응용 사장, 김재하 단장과 함께 이런 철학을 공유했고 현재 최강 삼성의 토대를 닦았다.

거물급 보강은 유망주에게는 절망적인 신호다. 그들의 동기를 꺾어버리고 성장을 막는다.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 팀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 2003년 진필중, 박재홍, 마해영 등 거물급 외부보강을 하고도 정착과 체질강화 두 토끼를 놓친 KIA의 뼈아픈 사례도 있다.

그러나 감독에 조가 2년 동안 성적을 내지 못하면 자리가 위태로워 앞날을 설계하기 어렵다. 선 감독은 부임과 동시에 2연패를 달성해 자신감을 갖고 삼성의 미래를 포석했다. 계약기간 5년을 보장한 구단의 통큰 결정도 있었다. 장재력을 갖춘 유망주들도 많았다.

선 감독은 삼성처럼 KIA의 탄탄한 미래를 설계하고 싶어한다. 부단히 새 얼굴들을 발탁하고 2군 물갈이를 통해 경쟁과 활력을 불어 넣으려 노력한다. 그러나 과실을 따먹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지난해 4강 진출에 실패하는 바람에 당장 성적이 필요하다. 결국 FA 외야수 김주찬을 영입했고 최근 김상현을 내주고 투수 송은범과 신승현을 보강했다. 우승 배팅이었고 실제로 세 선수는 KIA의 반등을 이끌었다. 삼성과 KIA의 다른 현실은 다른 선택을 낳았다. /OSEN 야구전문기자

박인비 USSA 선정 '4월의 선수'

김연아 이어 두 달 연속 영광

세계여자골프 랭킹 1위 박인비(25·사진)가 미국스포츠아카데미(USSA) 4월의 여자선수로 선정됐다.

USSA는 20일 "전 세계에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여자부문에 박인비가 이달의 선수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1972년 미국 올림픽 팀의 코칭과 트레이닝을 위해 설립된 USSA는 스포츠 분야의 학사, 석사, 박사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는 스포츠 교육기관이다.

박인비는 지난달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대회인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는 등 올 시즌 3승을 올리며 세계랭킹 1위를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달 '피겨 여왕' 김연아에 이어 두 달 연속 수상자를 배출하는 기쁨을 맛봤다.

한편 남자선수 부문에는 미국프로골프(PGA) 마스터스에서 우승한 애덤 스콧이 뽑혔다. /김민준기자

배상문 어머니 '골프계 신사임당'

배상문의 어머니 시옥희(57)씨는 골프계에서는 '신사임당'으로 불린다.

아들이 골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살던 집은 물론 자동차, 반지까지 몽땅 팔아 지극정성으로 아들을 뒷바라지했다. 그것도 모자라 국내 투어 대회에서 직접 골프백을 메고 전국을 돌며 가까이서 아들을 챙겼고, 경기를 못하면 현장에서 심하게 야단을 지기도 하는 '극성 엄마'로 통했다.

20일 아들이 PGA 투어 챔피언이 되는 순간 시씨는 경남 합천 해인사에 있었다. 독실한 불교 신자인 그는 석가탄신일 하루 전날인 16일부터 해인사 홍제암에서 밤새 불공을 드렸다.

시씨는 "아들을 혼자서 키우다 보니 그때는 너무나 절박했다"며 "사춘기 때는 아들과 많이 다투기도 했는데 그래도 크게 변하지 않고 따라준 아들이 고맙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이 이제 PGA 투어에서도 우승했으니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골프장에서 소리 지르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웃었다. /김민준기자

배상문과 어머니 시옥희(오른쪽)씨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27 How is the weather today? 날씨에 대해 말하기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오늘 날씨가 어때요?
오늘은 상당히 춥네요.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오늘은 봄의 첫 날이에요.
오늘 기온이 몇 도인가요?

▶ 하루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How is the weather today?
It's quite cold today
The days are getting hotter
Today is the first day of spring
What's the temperature today?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 짧은 대화 훈련

대화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How is the weather these days?
B The days 점점 더워지는 are

정답 getting hotter

▶ 빈칸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How is the weather today in [California / New York]?

2 The days are getting [hotter / warmer]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2

데미덱 이메일사전

Business English

마무리 인사
Complimentary closings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time

저희 제품에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Thanks so much for your interest in my product

주말 잘 보내세요.
Enjoy your weekend

다음 주에 꼭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I'll be sure to follow up next week.

그 외에 생각나는 게 있으면 또 연락 드리겠습니다
I'll write again if I think of anything else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The owner of Pergini Builders estimates that the construction in downtown Erlton will take ______ eighteen months to complete
(A) approximately (B) slowly
(C) eagerly (D) spaciously

02 Kayemon restaurants can be ______ in a wide variety of locations from urban centers to coastal towns
(A) finding (B) found
(C) having found (D) find

01. 페르지니 건설사 소유주는 엘튼 시내의 건축 공사가 완료되는 데 약 18개월이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설 '대략 18개월'이 적절하므로 (A) approximately가 정답이며, about, around도 정답이 될 수 있다
어휘 estimate 추정하다, 어림잡다 eagerly 열심히 spaciously 널찍하게
정답 (A) approximately

02 카요몬 식당들은 도심에서 해안 마을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지역에서 볼 수 있다
해설 be동사 뒤에 동사가 올 때는 -ing나 과거분사가 와야 하는데, 의미상 수동의 뜻(발견되다)일 때는 과거분사인 (B) found를 쓴다
어휘 a wide variety of 아주 다양한 urban 도시의 coastal 해안의
정답 (B) found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3 듣고, 질문에 답하기

Where 의문문

장소를 묻는 질문입니다. 장소 관련 어휘들을 미리 알아두고 질문에 따라 응용하여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Q: Where do you buy accessories? 어디서 액세서리를 사니?

A: I buy accessories at a jewelry shop 보석 가게에서
at a department store. 백화점에서
online 온라인으로

When 의문문

시간이나 상황을 묻는 질문입니다. 구체적 시간이나 특정한 상황에 관한 답변으로 말해야 합니다.

Q: When do you usually listen to music? 주로 언제 음악을 듣나요?

A: I usually listen to music in my free time 한가할 때
when I'm going to work, 출근할 때
during my lunch break 점심 시간에